

감사의 달

믿음성장과 신앙생활 성숙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성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감사해요



“ 감사,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말
감사, 말로 하면 관계가 따뜻해지는 말
감사, 고난 속에서도 나를 지탱해주는 말
감사,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말 ”

“생각기아 사방에서 와서...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 37:9

새로운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채

성 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예 배 WORSHIP

November 7, 11:30 a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사역과 행사 교독문 28번 - 시편 63편 예배를 위한 기도
하나님 앞으로	예배기도 / 김훈태 집사 찬 송 / 621장 - 찬양하라 내 영혼아 / 2절 주님 가르치신 기도
헌신과 나눔	찬 송 / 429장 -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통일찬송 489장) 찬 송 / 302장 -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통일찬송 408장) 봉 헌 / 구 민 집사, 최선운 집사 * 봉헌찬송 / 213장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통일찬송 348장)
말씀과 결단	찬 송 / 200장 -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통일찬송 235장) 성경말씀 / 미가 4:1-5 메시아 왕국에서 누리는 축복들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삶과 세상으로	찬 양 * 축복기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 요 찬 양 예 배

합심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빌립보서 1:1-2

참된 기쁨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2021년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에 감사합니다. 성도와 이웃에게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 2021년 표어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
주제 말씀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에스겔 37:9)
- 믿음 성장과 신앙생활 성숙 주간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해, 성장과 성장을 추구합니다.
- 이전을 위한 기도 점심찬교 후, 팔레타인 장로교회 사역 개시와 CUMC 에서의 사역 마무리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하는 기도시간을 가집니다. (오후 1:30)
- 사역훈련 12 주간의 안수집사 교육이 계속 됩니다.
- 성경 읽기 소요리문답 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참여합니다. (섬김이: 장경미 사모)
- 토요 새벽기도 토요일 새벽 기도(오전 7시)에 참여합니다.
- 주일 QT 나눔/기도 모임 함께 말씀 나누며 기도 합니다. (오전 10:15 / 인도: 장영현 전도사)
- 믿음의 뿌리 내리기
 - 1)기도운동 교회 이전, 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 2)예배 공예배 참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로 변화합니다.

11월의 사역 - 이전을 위한 기도모임(7, 14, 21, 28).

성장과 성숙 주간(7-13), 세상의 소금과 빛 된 주간(14-20),

추수감사주일 (21), 선교주간(21-27), 선교주일(28)

♥00원 00원00원♥ 김지수(2) 정연미(4) 박진성(5) 정하민(23)

기도제목

-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의 안전과 건강(특히, 정홍렬목사, 박진성집사, 최운정양의 회복과 치유)을 위해
- 교우들이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며 직장에서 일하도록
- 자녀의 신앙교육과 Youth Ministry 2세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 하나님께서 예배처소 이전을 허락하셔서 새로운 교회의 성숙과 성장의 계기가 되도록

예배섬김이

주일예배기도	11/7	11/14	11/21	11/28
	김훈태집사	박진성집사	최내권집사	최선운집사
주일헌금위원	11/7	11/14	11/21	11/28
	구 민집사/최선운집사		구은강집사/김훈태집사	
주일안내위원	11월			
	구 민집사			

말씀노트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생기를 넣으리니, 살아나리라.**” / 에스겔 37:1-10

에스겔은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 큰 군대가 되는 기적을 경험했다. 절망과 죽음의 장소가 소망과 생명으로 하는 기적이었다. 소망은 현실과 상황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절망의 현실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보이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에스겔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으로 응했다는 점이다. 우리도 눈앞이 캄캄해지는 일이 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현실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 섬김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를 꿈꾸며 시작되었고 ‘치유, 회복과 나눔’의 사역을 추구하며,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사역 중이지만, 갈 길은 아직도 멀다. 즉, 섬김의 교회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 주실 때, 살아날 수 있다.**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이다.

메시아 왕국에서 누리는 축복들 / 미가 4:1-5

메시아 왕국에 속했으나 세상에서 살면서 갈등을 겪는다.

시선을 천국으로 고정하자.

메시아 왕국은

첫째,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신다.

둘째,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셋째, 하나님이 복하신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통치를 받으며,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며 감사하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된 긍지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자.

메시아 왕국에서 누리는 축복들 / 미가 4:1-5

미가 4장은 메시아 왕국을 소개한다. 우상숭배는 중단 되고, 약자는 보호 받고, 가난한 자는 필요가 충족된다. 4:1의 “끝 날에 이르러는” 구주 예수님의 초림을 뜻한다. “여호와와 그의 산”은 예루살렘 성전 터 시온 산이지만, 성도가 모이는 교회를 뜻한다.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을 뜻한다. 즉,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메시아왕국은 온전히 실현되는 것이다.**

첫째,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시는 곳이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은 모세를 대표로 선택했고, 이후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다. 그런데 메시아 왕국의 백성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도를 배우게 된다(2절). 예수님의 약속처럼 성령 하나님이 오셨고,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일하시며 깨닫게 하신다. 반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깨닫지 못 한다.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없다. 성령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더 열심히 배우고 순종하자.

둘째, 메시아 왕국,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다. 최고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민족들 사이의 소송을 판결해주신다(3절). 그 결과 전쟁은 종식되고 평화가 도래한다. 실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는데, 성경은 메시아 왕국에 임하는 평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한다. 세상이 요동하고 파괴적이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자. 평화의 왕 예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자.

셋째,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곳이다. 피를 흘려 싸우는 대신, 땀을 흘려 일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린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대표적인 과실이며 축복의 상징하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화롭게 노동의 결과를 누리며, 전쟁이나 도적 그 어떤 위험이나 불안 없는 평화로운 삶으로 변한다.

궁극적으로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긍지와 감사를 드리게 된다”(5절). 우리는 교회에 속했으나 세상에서 살면서 슬한 갈등들을 겪는다.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의 시선은 천국을 향해야 한다.** 2021년을 마무리하며, 첫째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더욱 더 가득히 채우고, 둘째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화평을 더욱 더 누리며, 셋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나누자. **메시아 왕국의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통치하심에 순종하고 그리고 축복하심을 누릴 때이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삶과 묵상

지금 다시 중보기도 할 때...

처음 중보기도에 대한 마음을 받았을 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감동이나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중보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중보기도와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셨고, 곧 견잡을 수 없는 부담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하나님께 도대체 어떤 중보기도를 원하시는지 묻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공동체를 위한 중보기도의 중요성에만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가 중보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닌, 공동체 전체가 이타적인 기도를 하는 중보기도 공동체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왜 하필 중보기도 공동체가 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한 사람은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잘 지내다가도 불현듯 두려움이 찾아오고 순간 자신감이 사라지는 이유도 숨어 있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최대한 빨리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찬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 교전 127-29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에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는 세상의 방법에 먼저 시선을 돌리고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방법과 선택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요청하십니다. **내 자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방법과 개입하심도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찾으시고, 그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해 보이는 자들, 그러나 절대 그 내면은 연약하지 않은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도의 끈으로 묶어 기도의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절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중보기도'라는 영적인 씨앗을 심어주시고, 그 씨앗이 조금이라도 자라서 싹을 틔우는 이들을 공동체로 묶어주시는 듯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일 때,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이진황, 『지금, 다시, 중보기도』

선교소식

아버지의 신실하한 은혜로 뉴욕에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희는 기도해 주셔서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해 섬기느라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는지도 몰랐습니다.

저희 센터에 나오시는 몇 가정이 물건을 전혀 들고 나올 수 없는 정도의 피해를 입으셔서 모든 것을 다 잃으셨고 또 다른 곳을 이사를 해야 해서 집을 알아 보고 재정을 모아야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큰 사랑은 우리의 생각 보다 크심을 알았습니다.

주변의 여러 분들이 음식, 옷, 살림 도구를 제공하셨고 함께 청소해 주고 기도해 주면서 격려하는 모습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감사했는지요. 섬김의 교회에서 보내주신 귀한 재정 또한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고 살기 힘 들어 네팔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네팔 노인 부부가 필요한 것을 준비해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일 하시는구나 하는 고백을 계속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귀한 사랑을 흘려 보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크신 뜻 가운데 복음의 전파로 섬김의 교회가 크신 축복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뉴욕에서 박은주 올림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잠시 머무려
생각합니다.

교회의 이적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주지만
우리가 부족하다고, 영약하다고 기 죽지
않습니다.
힘 내고 힘을 합칩시다.

다른 도약과 변화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눈 모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울 듣고 따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이니...”

사무엘서 12:23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BIBLE STUDY MINISTER 장영현 전도사

SUNDAY SCHOOL 김진숙 전도사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